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 조성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광장에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 사업(스마트 미디어 스퀘어)'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구 대표 변화가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광장에 '아트 스테이지'와 '미디어 폴'을 설치하고, '반응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송출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응형 미디어아트'는 무대 위로 투사되고 사용자 발걸음 등에 반응해 다양한 영상과 소리를 제공한다.

특히, 봄·여름·가을·겨울을 형상화한 사계절과 상권 활성화 콘텐츠, 크리스마스·추석 등 기념일에 어울리는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주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남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로데오거리 광장의 낡은 무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무대와 미디어폴 설치를 마쳤다. 반응형 미디어아트 영상 테스트와 시스템 최적화를 완료한 후 연말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동구 대표 변화가인 로데오거리가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 상권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정

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부평구는 지난 15일 구청에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합숙 공간으로 조성되어, 광복 이후에도 부평 지역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활용되면서 근현대 산업사·생활사를 담고 있는 근대건축유산이다. 지난 2024년 8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부지(토지)만 우선 등록되었으며, 건축물까지 등록·보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줄사택 건축물 보존을 위한 첫 단계로 학술조사, 건축물 실측조사,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해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지역구 의원, 자문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용역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보존 범위, 활용 계획 등 최종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구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줄사택의 구체적인 보존·복원 방향을 도출하고, 내년 2월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최종 계획 수립까지 충실히 반영되어 줄사택의 역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줄사택이 부평의 대표적인 근대건축유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연말연시 인파밀집 '특별 안전관리대책' 가동

성탄절·해맞이 명소 11곳 특별 관리... 행복한 추억 위한 안심 환경 조성

현장 순찰, 안전요원 배치, 응급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6일 성탄절과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기간 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1개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군·구 안전관리부서를 비롯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다중운집 시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스

케이트장과 썰매장이 운영되는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해넘이 명소인 중구 월미도 및 을왕리해수욕장, 서구 정서진, 송년제야 행사를 개최하는 강화군 고려궁지,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해맞이 명소인 강화군 불은면 오두돈대, 중구 백운산 및 거잠포 선착장, 미추홀구 수봉공원, 계양구 계양산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간 동안에는 현장 순찰 강화,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배치, 교통 통제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차량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인근 의료기관과의 핫라

인을 구축하여 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계양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구 직원 45명, 산불재난 대응단 8명, 경찰 10명 등 총 63명의 인력이 주요 지점에 집중 배치되어 우측통행을 유도 및 혼잡도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계양상 정상·하느재고개·계양산성 등 혼잡도가 높은 지점은 인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탄력적으로 입산 통제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 외 지역도 실시간 인파 동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조치가 시행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안전대책은 각 지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점 안전관리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전 돌입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선다.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공식 보고되며 본격적인 지정 절차 착수를 알렸다.

이에 강화군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지지 확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최종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간 강화군은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해 여론을 결집했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쇄물과 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2만 7천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염원하는 캠페인이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기대와 희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강화군은 앞으로 대외적 공감대 형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매체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마련한다. 정책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서명운동도 확대 추진해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갈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강화군이 역사·문화·미래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해 반드시 최종 지정이 이뤄지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수구, 지진 대응 자체 훈련 실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자생 단체 및 안전현의 체 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자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교육,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전현의체 위원 대상 지진 재난 초기대응 교육, ▲직원·주민 참여 대피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훈련과 함께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 상황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진 대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올해 연수구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 옥외 대피장소를 기존 25곳에서 18곳을 추가해 총 43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태세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봉~모도 연도교, 점속도로 행정절차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칭 '장봉대교(장봉도~모도 연도교)'와 연결되는 점속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12월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은 2023년 5월 1일 광역시도로 승격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시도·신도를 연결하는 총 15.9km 구간 중, 모도리 일원 0.6km 구간(폭 9.5m, 왕복 2차로)으로 계획됐다.

해당 구간은 향후 연도교 진입도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핵심 구간이다.

도로구역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해 연도교 준공 시기와 연계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위해 7개 기관과 업무 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경찰청, 인천YMCA, 인천YWCA, 가천대길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확산으로 학생 노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

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경찰과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에 이어, 올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지역단체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치료,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고위험군 학생 상담·치료 지원, 예방 홍보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도박 문제 대응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